

## 제1강 비-파시스트적인 삶과 자유: 들뢰즈와 가타리에 관하여

최 진 석

### 1. 침묵의 이유들

『안티 오이디푸스』는 악명 그 자체다. 전통적으로 철학저술의 ‘철학성’을 규정짓는 통상의 범례들을 이 책은 내용에 있어서나 형식에 있어서나 훌쩍 넘어서 버렸다. 반듯하게 잘 정돈된 개념과 범주의 조화로운 향연을 기대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은 불안정하고 당혹스러워 보이는 글 무더기일 뿐이다.<sup>1)</sup> 미치광이의 장광설이 아니라면, 이 책은 철학의 전통 뿐만이 아니라 책의 전통으로부터도 일탈한 그로테스크의 글쓰기처럼 보인다.

1972년 『안티 오이디푸스』가 처음으로 출판되었을 때, 프랑스의 독자들도 비슷한 곤혹을 느꼈다. 독일철학의 체계성에 대비되는 프랑스 철학의 ‘문학성’이 종종 지적되기는 하지만, 이 책은 그 이상이였다. 들뢰즈는 이미 전도유망한 소장 철학자였고 가타리 역시 실천과 이론 양면에서 두각을 보인 활동가였음에도, 출간 6개월이 지날 무렵까지도 그들의 책에 대한 반응은 미미했다. 이러한 침묵은 두 가지를 맥락에서 풀이된다. 하나는 이 책이 그 자체로서 읽혀야 할 물리적인 시간의 무게가 요구되었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이 책에 대해 알고 있었으되 억지로 침묵하고 있는 억압의 무게 때문이었다. 전자는 새로운 사유가 이해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후자는 이 책의 출간을 진작부터 예의주시해 온 그 반대세력, 곧 라캉주의자들 이었다고 가타리는 전한다.<sup>2)</sup> 얼마 지나지 않아 침묵의 시간은 깨지고 달뜬 환호와 열띤 비방이 줄을 이었지만, 실상 어느 쪽도 『안티 오이디푸스』에 대한 적합한 반응은 아니었을지 모른다. 한국어 번역본이 두 차례나 나온 지금까지도 이 책에 대한 논의는 아직 단편적이며,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여전히 읽히지 않은 채 침묵 속에 남겨져 있다.

### 2. 전사로서의 정신분석, 또는 프로이트-라캉주의

- 신경증과 분열증(정신병)
- 소망과 욕망
- 무의식과 이드
- *Wo es war, soll Ich werden.*
- 거세와 오이디푸스
- 빌헬름 라이히
- 파시즘과 욕망

### 3. 욕망하는 생산과 사회

신체(corps)는 인간 개개인의 몸뿐만 아니라 자연과 사회, 심지어 우주 전체를 포괄하는 집합

1) Eugene Holland, *Deleuze and Guattari's Anti-Oedipus*, Routledge, 1999, p. ##

2) “분열분석을 향하여”, 우노 쿠니이치(宇野邦一)와의 대담.

체다. 하지만 신체는 체계적으로 잘 짜여진 구조적/위계적 심급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마치 고전 형이상학의 전통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듯, 소우주와 대우주의 (위계적) 대응관계에 따라 우주 전체를 신체들의 체계로 구획할 수 있으리라. 우주와, 자연과, 사회와, 인간과, 동물과, 미물과... 그러나 도대체 있는 것은 소우주나 대우주라 불리는 유기적 구성체(organic formation)가 아니라, 차라리 기계 또는 기계적 구성체(machinic formation)일 뿐이다. 기계는 질료들의 흐름, 힘의 지속적인 이행을 절단하고 이어붙인다. 때문에 기계들은 또한 임시변통 재주꾼(bricoleurs)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뭔가 생산된다. 은유들 말고, 기계의 결과들이”.

분열자는 자신이 주유하는 모든 경로에서 기계들의 일관성(constistance, 존재론적 평면성)을 본다. 그에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 불균등한 것은 없다. 아빠도 엄마도 목사도 신도 본성상 하나이며 기계들이다(다른 것은 그것들이 놓인 자리들, 즉 배치일 뿐!). 일반화된 기계주의 또는 기계권을 조심스레 이해해 보자. “생산의 과정... 더 이상 인간도 자연도 없다. 오로지 하나 속에서 다른 하나를 생산하고 기계들을 짝짓는 과정만이 있다. 도처에 생산하는 즉 욕망하는 기계들, 분열증적 기계들, 유적인 삶(vie générique) 전체만이 있다. 자아와 비-자아, 외부와 내부의 구별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 오이디푸스는 이 생산의 흐름 전체를 결락시키고, 위계화시키는 구조를 도입한다. 기계는 엄마-아빠-나의 삼자관계 속에서 인격화되고, 욕망을 소모하기 시작한다. 중요한 것은 이 구조 속에서 욕망하는 기계는 욕망의 생산자가 아닌 해체자로 등장하며, 욕망의 항상적이고 직접적인 일관성이다. “생산은 즉각 소비이며 등록이고, 등록과 소비는 직접 생산을 규정하며, 그것도 생산 자체의 한가운데서 생산을 규정한다. 그리하여 모든 것은 생산이다”. 구조는 생산의 세부들을 분할하고 위계를 할당하여 단일하게 규정된 회로를 만든다. 그것이 구조다. 이로써 생산은 불임이 된다. 이때 불임이란 단일한 방식의 생산, 유일하게 허가된 생산의 가능성만이 남아있음을 뜻한다. 오이디푸스화된 구조의 생산이 그것이다.

기계권에서는 생산과 소비의 구분이 없고, 주체와 객체의 구별도 없는 일반화된 생산주의가 성립하지만, 오이디푸스적 구조에서는 각 항들 사이의 고착화된 위계적 분배가 시작되며, 질료들의 흐름이 봉쇄되고 반(反)생산의 회로가 반복된다. 왜냐하면 구조 속에서 흐름은 위계에 따라 배분되고 동일한 과정을 반복 유지하도록 목적을 부여받는다(두 가지 기능주의: “우리는 모두 기능주의자다” — 가타리). 그러나 기계권의 생산주의는 목적론도 아니고 악무한도 아니다. 그것은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의미에서 생산의 지속, 지속으로서의 생산 자체일 따름이다.

분열증은 기계들의 무한한 계열화를 통해 오직 생산 자체만을 추구한다. 그것은 목적없는 생산이지만 양수(+)의 생산이며, 무한한 생산이지만 개방된 형식을 갖는다. 어떻게?

욕망하는 기계의 결합체제는 이항적이다. 여기서 기계의 이항성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신학적 독단을 따르지 않는다. 차라리 이항적 결합은 외부의 현존을 가리킨다. “하나의 기계는 언제나 다른 기계와 짝지어 있다. 생산적 종합, 생산의 생산은 〈그리고〉, 〈그다음에〉...라는 연결 형식을 갖고 있다”. 외부는 절대적인 명령과 이념을 하달하는 초월적인 심급이 아니다. 그것은 이웃관계, 다른 기계의 내재성을 뜻한다. 따라서 외부와의 짝관계, 곧 계열화는 전방위적 접속의 잠재성(virtuality)을 뜻한다. 계열화를 통한 새로운 기계의 생성은 이웃한 다른 기계와의 접속을 통해 발생하며, 계속적인 접속의 연쇄(계열화)를 통해 또 다른 기계로 변이한다. 이것은 질료들의, 힘의 흐름이며 계속적인 이행이다. 그러나 기계는 또한 질료들의 흐름을 절단하고 채취하여 특정한 기능을 위해 소비하고 또 일정한 벡터를 따라 흐르도록 조정하기도 한다. 그래서 흐름은 항상 연속과 절단의 양가적(ambivalent) 관계 속에서만 관찰된다. 요점은 이행의 지속에 있다. 하지만 기계의 변이는 결코 체계적인 구조를 따르지 않는데, 왜냐하면 기계의 구성, 즉 계열화는 우연적이고 비선형적인 돌발에 의해 항상적으로 침범되는 탓이다. 기계는 횡단적으로 접속한다.

“생산물에는 언제나 생산하기가 접붙으며, 바로 이런 까닭에, 모든 기계가 기계의 기계이듯, 욕망적 생산은 **생산의 생산**이다”. 생산하는 것과 생산되는 것의 일치, 이것의 스피노자적 이름인 **능산적 자연(natura naturans)**은 일반화된 생산주의의 다른 이름이다. 또한 그것은 모든 기계들의 탈구된 기계이자 전방위적 접속의 잠재성으로서의 **기관 없는 충만한 신체**이기도 하다. “〈입 없음. 혀 없음. 이 없음. 목구멍 없음. 식도 없음. 위 없음. 배 없음. 항문 없음〉. 자동장치들은 정지하고 전에 절합했던 **비유기체 덩어리**를 등장시킨다”.

기관 없는 신체는 강도=0의 상태, 그러나 도대체 무(無)가 아니라 **잠재성의 전방위적 분화의 문턱**이 강도=0이다. 그것은 생산의 영원성이지만, 기계들의 (유기적) 접속과 생산을 다시 모든 것이 접속/생산 가능한 분화의 문턱, 강도=0의 상태로 환원하는 무한한 힘 자체의 생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반(反)생산(antiproduction)인가? 『안티 오이디푸스』의 과제는 유기화된 생산, 고착된 기능주의적 생산, 다시 말해 자본주의적 ‘분업’의 거대기계를 중단시키기 위해 자본주의적 생산의 흐름을 꺾는 데 있다. 따라서 『안티 오이디푸스』에서 강조되는 반생산이란 곧 전일적인 기능주의, 잠재성의 충만, 강도=0으로 표시되는 생산 자체를 가리키기 위한 역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산을 반생산과, 반생산의 요소와 짝짓는 것은 여전히 연결종합 내지 생산적 종합의 한 특성이다”.